

폐지 모아 한푼 두푼...68세 아내 올린 웨딩드레스

주례가 노부부에게 몸을 낮추며 물었다.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사람과 결혼하시겠어요?”

팔순을 앞둔 신랑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소”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칠순의 신부도 “네...” 라고 수줍게 말하고 신랑의 품에 얼굴을 묻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결혼식 내내 신부의 얼굴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날의 설움과 회한이 묻어났다. 그런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던 신랑의 눈가에도 소리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5일 오후 4시 광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42년 만에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주인공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에 사는 최수봉(78)·장봉애(여·68)씨 부부.

신랑·신부 행진과 성혼식, 주례사, 축가가 이어지는 동안 부부는 감격에 겨운 듯 연방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부는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식에는 둘째 아들만 참석했다. 다른 자녀는 연락이 닿질 않거나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노부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42년을 함께 살고 있는 부부는 고단했던 삶 탓에 지금껏 식을 올리지 못했다. 젊어서부터 천식을 앓아온 할아버지는 일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다. 그나마 청·장년 시절엔 술과 도박에 빠져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지난해 가을에는

42년만에 아주 특별한 결혼식 담양 최수봉·장봉애씨 부부



5일 광주시 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최수봉(78)·장봉애(68)씨 부부가 입장하고 있다. 담양군 창평면에 사는 노부부는 함께 산지 42년만에 광주재능기부센터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죽기전 소원 못들어주면 정말 슬플 것 같아”

감동의 사연에 광주재능기부센터도 선뜻 도와

늙은이로 쓰러져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다.

젊어서부터 양육과 경제 활동은 온전히 할머니의 몫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

밭일에 공공 근로까지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한평생을 고생만 해왔다.

지난 9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할아버지는 ‘웨딩드레스 입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휠체어에 몸을 싣고서 고물 수집에 나섰다. 너무 늦었지만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폐휴지와 강동 모으기에 나선 것.

시골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은 할머니 여동생(61)의 소개로 광주재능기부센터에 최근 알려졌다. 결혼식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혼식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페이스 북을 통해 알려지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신부 화장, 축가 등 물품과 재는 기부가 이어졌다. 언제 이뤄질지 기약조차 없었던 노부부의 결혼식은 할아버지의 노력과 주변의 아낌없는 관심으로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게 됐다.

최 할아버지는 “죽기 전 소원이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고물 수집에 나설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소원이 이뤄질 줄 몰랐다”면서 “내가 죽기 전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리라 마음만 졸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라도 식을 올리게 됐다. 이제 나도 집사람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장 할머니는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보고 죽는다면 정말 슬플 것 같다고 남편에게 그냥 말 한번 했을 뿐인데 몇 달도 되지 않아 소원이 이뤄진 게 신기하고 또 신기할 따름”이라며 “남편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이제라도 남은 생을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8
해질 17:34
달출 17:14
달짐 05:53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하세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7/18	보성	맑음	5/18
목포	맑음	9/18	순천	맑음	8/19
여수	맑음	10/18	영광	맑음	6/17
나주	맑음	5/18	진도	맑음	8/17
완도	맑음	9/18	전주	맑음	8/18
구례	맑음	6/18	군산	맑음	7/18
강진	맑음	7/18	남원	맑음	5/17
해남	맑음	7/18	흑산도	맑음	12/17
장성	맑음	6/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31	01:09	18:59	13:43
여수	08:29	02:03	20:43	14:29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6/16	8/16	10/17	7/18	8/17	8/17	6/15

◇생활지수

	식중독	39
	운동	70
	빨래	70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

“커피도 차 에서 시켜요”

광주 커피전문점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 13곳 운영

최근 들어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모습이 광주지역에서 익숙한 출근길 풍경이 됐다. 커피전문점도 차량 주문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상태다.

광주시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시대에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출근하려는 외식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 잦은 야근과 회식, 많은 업무량 탓에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을 앞당기는 직장 분위기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 2곳은 올 들어 광주지역에 차 안에서 주문할 수 있는 점포 4곳을 여는 등 총 11곳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DT·사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매장방문고객과 차량탑승고객을 동시에 맞으면서 다른 매장보다 매출 면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기업, 상가, 주택이 밀집해 차량 이동이 많은 큰 도로변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출근 시간에 간단한 식사를 원하는 직장인들을 주요 판매 고객으로 삼았다.

고객이 입구에서 외부 마이크에 음식



을 주문하고 식당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계산, 음식을 제공받는 절차를 거친다. 매장은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 1분30초 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S커피전문점은 이달 안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드라이브 스루 점포를 열 예정이다. 밥 없이는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새롭게 짰 것이다. 또 다른 S커피전문점은 이미 서구 광천동 등 2곳에 차량 주문 점포를 열었다. 커피 한잔 시켜놓고 서너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생기는 주차공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이 매장 측 설명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지역 대형병원 4곳 석면 건축 자재 썼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16곳 조사...입원실서도 성분 검출

조선대학교 병원·전남대학교 병원·광주기독병원·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 4곳이 석면 성분이 포함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조선대학교 병원 등 광주지역 4개 대형병원과 부산, 대구, 대전에 위치한 16개 대형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곳 모두 석면 성분이 포함된 천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2~23일 이들 병원 16곳을 대상으로 육안 조사와 시료 채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병원 16곳의 천장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종류인 백석면과 갈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채취한 시료

를 분석한 결과 농도는 2~7%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농도인 0.1%를 20~70배 초과한 것이라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설명했다.

특히 조선대 병원을 비롯한 조사대상 병원 16곳 중 10곳에서는 입원실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석면 성분이 나온 천장재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어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병원에서 되레 석면가루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되도록 빨리 병원 측이 자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런 비극 없게...‘세월호 백서’ 나온다

해수부, 관련 자료 수집나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세월호 백서’가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5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가장 ‘세월호 침몰사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정부 부처를 비롯,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진행된 전 과정을 담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백서 발간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선 상태다.

백서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과 사고 경위·수습 과정·보상 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 등 전 분야가 망라된다. 오는 11월 11일 예정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비롯, 청해진 해운 재판 결과, 세월호

인양 여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향후 진행될 특검 활동 상황, 결과 등도 반영하겠다는 게 해수부 구상이다.

해수부는 백서 발간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백서에 담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차로 대대적 본부·해양경찰청·국회 등 정부기관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발간 예정일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가 망라될 때까지 진행될 계획이라 발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전남대학교병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연산 100%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런칭 기념 2+1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시럽 프리미엄 28,000원
- 시럽 일반 22,000원
- 가루 38,000원
- 고체 36,000원

(무로배송)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U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